구담 스님, 첫 독립장편 무용극영화 제작

장편독립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

9월 14일 나무카페서 제작발표회 개최
2023년 1월 첫촬영 · 10월 시사회 예정
현대무용 · 영화적 서사 결합 새 형식
윤회 주제 · 49재 소재 무대서만 촬영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구담 스님이 9월 14일 서울 조계사 내 나무 카페에서 독립 장편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의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 배우 신무길, 최주영, 구담 스님, 배우 남가현, 안무감독 문지애)

독립영화 감독인 구담 스님이 9월 14일 서울 조계사 내 나무 카페에서 독립 장편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의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제작발표회에는 연출을 맡은 구담 스님을 비롯해 안무감독 문지애, 200: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출연배우 신무길(제바 역), 최주영(선아 역), 남가현(수인 역)과 주요 스텝들이 참석했다.

2023년 1월 크랭크인과 10월 시사회 예정인 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런닝타임 80분)'은 주인공인 수인의 49재를 지내는 제의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생과 환생을 통해 거듭나는 성찰의 이야기로, 전체 촬영을 무대 위에서만 진행한다. 이번 영화는 국내 최초로 현대무용과 영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인 '무용극영화'로, 기존의 댄스필름이나 스크린 댄스 등이 배우의 대사나 영화적 표현 없이 무용을 위주로 한 것이라면, 이번 영화는 현대무용과 영화적 서사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이다.

수인이 전생에 공주였을 때 공주를 사랑했던 광대가 공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시 환생해서는 구렁이로 변한다. 그리고 수인과 함께 다른 모습의 많은 생을 거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는 생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어떻게 본질적인 주체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영원불멸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불교, 극, 무용이라는 이질적 요소의 융합으로 새롭게 구현한다. 가시적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물 관계의 인과성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불교의 윤회사상을, '극'이라는 실험적 공간을, 무용이라는 관계성의 기제를 유기적으로 조합했다. 다른 시간대의 인연이 옴니버스처럼 이어지며 시공간을 뒤틀지만 오히려 주인공의 사랑과 희생은 뒤틀어진 시공간을 뛰어넘으며 큰 울림을 준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근원적 가치를 무용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 중심의 새로운 영화기법을 선보인다.

"무대에서의 무용은 증발하지만 영화에서의 무용은 시간으로 저장된다. 아주 작은 시선이동 한 번이 백 마디의 대사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다. 움직임은 이성보다는 본능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음성언어와는 다르게 직관적이다."

문지애 안무감독은 49재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속의 인물들을 긴 안목으로 연결, 압축했을 때 발생하는 그 사의 서사를 포착하고자 했다고 한다. 다른 시간대에 살았던 생을 소환하여 같은 시간대에 재배치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생을 연결하고 그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인연의 연결고리를 무용으로 표현한다. 또한 무용과 영화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몸의 움직임, 안무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안무를 선보인다.

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은 불교영화의 미래적 대안인 불교예술영화를 위한 것이면서, 현재 불교영화 중흥을 위한 불교 기획영화 필요성에 의해 기획됐다. 구담 스님은 "대중적인 상업영화 제작을 위한 대규모 제작비의 투자가 어려운 현실에서 작품성 있는 저예산 독립장편영화의 활발한 제작이 불교영화의 중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은 불교영화의 중흥을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불교예술영화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무용을 새롭게 해석한 춤의 미학과 영상의 미학이 조화를 이룬 흥미로운 영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영화의 연출과 제작자인 구담 스님은 지금까지 총 다섯 편의 독립단편영화를 만들어 시사회, 방송, 영화제를 통해 선보여 왔다. 지금까지 구담 스님의 작품은 주로 30분 내외의 단편으로, 경전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거나 오늘날 사회적 공감의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 이번 영화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영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객과의 만남을 확대하기 위한 첫 번째 장편이다.

구담 스님의 첫 작품인 '두 번째 화살(2018)'은 〈아함경〉에 나오는 두 번째 화살에 비유한 삶과 죽음의 성찰을 주제로 했으며, 두 번째 작품 '불타는 다이어트(2019)'는 명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트라우마의 실체를 다루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제사(2020)'는 고전 〈삼국유사〉의 내용을 모티브로 한 억눌린 자아의식에 대한 성찰을 그렸으며, '오월의 만다라(2021)'에서는 광주 5.18 민주항쟁과 불교를 배경으로 출가수행자의 사회적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작인 '홀로 빛나는 어둠(2022)'은 현대 영화시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등 그동안 불교를 소재로 다양한 영화를 시도해 왔다.

안무감독 문지애는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이며, 김복희 무용단 대표이자 수석단원이다.

구담 스님은 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의 제작 고불식을 '구담 스님의 찾아가는 불교영화 이야기 100일 순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100일 동안 전국방방곡곡을 찾아 불교영화 법회, 특강 등으로 불자들에게 불교영화의 가치와 의미를 전한다. 그동안 제작한 단편영화를 상영하고 불교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법석을 마련함으로써 불자들에게 불교예술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불교영화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고불식을 대신한 이번 순례는 불교영화 제작을 위한 후원을 유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순례지는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구담 스님의 찾아가는 불교영화 이야기 100일 순례'에 동참하고 싶은 사찰과 소임자는 영화 제작 담당자(010-4656-1855)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년 만에 열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

2022 청량사 산사음악회
10월 1일 오후 7시 경내

미스트롯2 출신 가수 출연
양지은 김의영 은가은 등


2018년 청량사 산사음악회 모습.

청량산 청량사는 10월 1일 오후 7시 경내에서 2022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미스트롯2 출연 가수들이 출연한다. 진을 수상한 양지은을 비롯해 매콤 보이스 김의영, 모든 장르를 섭렵한 은가은, 국악인이자 미스터트롯 출신인 강태관이 흥겨운 트롯의 무대를 펼친다. 이어 소프라노 박선영, 테너 오상택 그리고 이종만이 지휘하는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단장 손현숙, 반주 류지영)이 출연해 다양한 음성공양을 선보인다.

청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그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지역민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를 준비했다"며 "모두가 힘들고 고단할 때 안방에 웃음과 휴식을 선사했던 트롯 열풍의 주역들을 모시고 한바탕 흥겨운 놀이마당을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름으로 산문을 지은 청정도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정함과 고귀함, 신비스러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년)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송광사 16국사 중 한 분인 법장 고봉선사가 중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054)672-1446. 박재완 기자

제1회 연울림 앙상블 정기연주회

10월 1일 오후 7시
부산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김소라 등 2021년 8월 결성
2022년 1월 첫 쇼케이스



2022년 3월 부산 관음사에서 열린 '틱낫한 스님 막재' 추모공연 모습.

불교중창단 연울림(지도법사 도진)의 첫 공연이 10월 1일 오후 7시 부산 동해문화회관 대극장에 열린다.

연울림은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전문 음악가들이 찬불가를 새롭게 작곡해 선보이고 불음을 노래하기 위해 창단한 불교중창단이다.

연울림 단원은 김소라 소프라노, 김선미 소프라노, 성민기 테너, 김기환 바리톤, 작곡가 강현민이며, '연울림'은 '노래하는 인연으로 마음을 울려 화합'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연울림은 공연에서 법정 스님의 시 '소창청기'와 담화림 스님의 시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 고산 스님의 시 '열반의 노래' 등의 새로운 찬불가를 선보이며, 이 외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파파게나 파파게노', 오페라 '춘희' 가운데 '프로방스의 대지와 바다' 등 전통 클래식 곡도 선보인다.

연울림은 2021년 8월에 결성해 2022년 1월 13일 '문화공간 목' 쇼케이스 콘서트를 통해 대중과 만났다. 이후 '틱낫한 스님 막재'와 경남 사천 청룡사 '겹벚꽃 연울림 앙상블 초청 음악회', 부산 당리 관음사 'LA 영화스님 초청 법회' 등 불교행사에 출연해 공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